

# 보은·금구집회의 전개와 동학농민혁명

성주현\*

- 
1. 머리말
  2. 보은·금구집회의 배경
  3. 보은·금구집회의 전개과정
  4. 보은·금구집회와 동학농민혁명
  5. 맺음말
- 

## 1. 머리말

19세기 조선은 격랑의 시기였다. 안으로는 봉건적 질서의 해체, 밖으로는 서세동점의 위기의 극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했다. 이 격랑의 중심에 ‘동학’이 있었다. 동학은 1860년 4월 5일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명되었다. 동학의 사상적 맥락은 시천주의 평등사상, 척왜양의 민족주체사상, 후천개벽의 혁세사상, 유무상자의 대동사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적 맥락은 당시 억압받고 새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였다. 1861년부터 포교되기 시작한 동학은 1871년 영해에서 변란을 통해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동학은 ‘영해교조신원운동’으로 와해 지경에 이르렀으나 점차 교세를 회복하였다. 교세를 회복하자 동학교단은 신앙

---

\* 청암대학교 연구교수

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하는데, 1892년 10월 공주에서, 11월 삼례에서, 그리고 이듬해 2월 광화문 앞에서 전개하였다. 이어 3월에는 보은에서 척왜양창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순수한 종교적 운동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회개혁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운동은 동학교단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였다. 그동안 동학은 성리학의 통치이데올로기에 이단으로 취급받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동학과 마찬가지로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서학이 1886년 조불통상조약을 계기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자, 동학교단도 교조신원을 통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동학교단은 현실적으로 동학의 공인을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1890년대에 이르러 동학교단은 교세가 삼남지방에까지 확산되자 새로운 모색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 또한 정부의 탄압에 대한 저항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주, 삼례, 광화문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고, 보은과 금구집회 즉, 척왜양창의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동학교단의 내외적 요인에 따른 교조신원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또한 척왜양창의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 역시 적지 않다.<sup>3)</sup> 이들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하

2) 박맹수, 「教祖伸冤運動期 參禮集會에 대한 再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이경원, 「교조신원운동기 동학지도부의 유교적 측면에 대한 고찰」, 『역사연구』 19, 역사학연구소, 2010; 박대길, 「東學의 교조신원운동과 斥倭洋」, 『진북사학』 37, 진북사학회, 2010; 表映三, 「東學의 辛未 寧海 教祖伸冤運動에 關한 小考」, 『韓國思想』 21, 韓國思想研究會, 1989;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 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삼암, 「교조신원운동」, 『한국사상』 24, 한국사상연구회, 1998 등.

3) 申榮祐, 「1893년 報恩集會와 東學教團의 役割」, 『實學思想研究』 10-11, 毋岳實學會, 1999; 우윤, 「1892~93년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양상과 그 성격」, 『忠北學』 5, 충청북도 忠北學研究所, 2003; 박찬승, 「1892, 1893년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

면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운동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전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1893년 보은과 금구에서 개최되었던 두 집회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듬해 전개된 동학농민운동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 2. 보은·금구집회의 배경

동학교단은 1892년 말과 1893년 초에 전개한 교조신원운동에서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였다. 하나는 교단 자체 역량의 강화였고, 다른 하나는 서세동점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동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보은 및 금구집회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동학교단 역량의 강화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는 동학교단이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그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동학교단은 1871년 3월 10일 영해에서 최시형, 이필제, 강수, 박사헌 등 5백여 명이 모여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sup>4)</sup> 사실상 교단의 와해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후 최시형은 관의 지목을 피해 강원도 태백산 중인 영월 직동, 정선 무은담과 적조암, 단양 송두둑 등지에서 은신하면서 동학의 맥을 유지하였다.

이곳에서 교단을 정비한 최시형은 1880년 전주, 삼례를 순회하면서

---

사비평사, 1993; 이희근, 「동학교문의 보은·금구집회」, 『백산학보』 42, 1992; 표영삼, 「보은 척왜양창의운동」, 『한국사상』 24, 한국사상연구회, 1998; 이기식, 「1892~93년 동학교도의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 인하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3 등.

4) 『도원기서』, 신미년 3월조. 영해교조신원운동으로 해월 최시형의 양자를 비롯하여 박사헌 등 경상도 일대 주요 지도자들이 교형을 당하였고, 해월 최시형은 그동안 동학교단의 지지기반이었던 경상도를 벗어나 강원도 태백산중인 정선, 영월 등지로 피신, 동학의 맥을 유지하였다.

호남지역에 동학을 포교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sup>5)</sup> 이를 계기로 호남지역에서 교세가 급증하게 되자 1892년 7월부터 동학교단 내에는 교조 최제우의 신원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인주와 서병학은 최시형에게 “우리 道의 急務가 先師의 伸冤一事” 즉, 수운 최제우의 신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비록 서인주와 서병학이 교조신원을 주장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교인들 사이에 교조신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시형은 아직 시기상조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해 10월 보다 많은 다수의 교인들이 교조신원을 요구하였다. 최시형은 이를 수용하는 입의문을 발표하면서 교조신원이 동학교인의 의무임을 직시하는 한편 교조신원운동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sup>6)</sup> 이에 서병학과 서인주는 충청지역 교인을 모아 호서의 중심인 공주에 집결하여 첫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주교조신원운동에서 교조의 신원 즉 동학의 포교 공인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동학교인에 대한 각종 폐단을 일체 중지할 것<sup>7)</sup>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학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즉 동학교단이 요구한 ‘신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실체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고무한 동학교단은 곧이어 전라감사를 대상으로 삼례에서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최시형은 각지의 교인에게 경통을 보내 보다 적극적으로 신원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삼례신원운동에서는 ‘수운선사의 신원, 탐관오리 제거, 교당설치 허가’<sup>8)</sup>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앞서 전개한 공주교조신원운동보다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전라감영은 처음에는 동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집회를 해산하려고 하였으나 동학교인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결국 ‘동학교인에 대한

5)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39쪽.

6) 오지영, 『동학사』 제2장, 70쪽.

7) 「甘結」,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동학서)』, 여강출판사, 1985, 68-70쪽.

8) 최영년, 「동도문변」,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99, 156쪽.

토색 금지'라는 결과를 얻어내었다.<sup>9)</sup> 이는 충청감사의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충청과 전라 감영으로부터 동학교인에 대한 토색의 금지는 이전의 일방적인 탄압보다는 점진적인 전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학교단은 공주와 삼례 두 차례 신원운동을 통해 공인을 요구하는 의송을 제출하였으며, 그 답변은 해산명령이었다. 동학교단은 이를 거부하고 보다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학교단은 자신들의 요구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만 일정한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동학교단이 관의 탄압에 피신과 은신이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저항'이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주와 삼례 두 신원운동을 통해 동학교단의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즉 최시형에게 '법헌'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였는데 교인의 통솔권을 보다 강화하였던 것이다. 즉 "앞으로의 행동은 일체 법헌의 지시에 따르라"<sup>11)</sup>고 하였는데, 이로써 동학교단은 최시형을 정점으로 조직이 일원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삼례에서 전개된 신원운동에서 논의된 바 있는 광화문 복합상소 신원운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다. 동학교단은 보은 장내리에 도소를 설치하자 각지에서 교인들이 운집함에 따라 새로 육임을 임명하여 조직을 안정화시켰다. 이어 동학교단은 복합상소를 위해 1893년 1월 중순 청원군 송산리 손천민의 집에 봉도도소를 정하고 이를 이끌어 갈 지도부를 선정하였다. 소두에 박광호, 소문 작성에 손천민, 서사에 남홍원, 교인대표에 박석규 임규호 박윤서 김영조 김낙철 권병덕 박원철 이석도 이문찬, 총지도자에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으로 각각 정하였다. 이와 함께 서병학을 먼저 서울로 올려 보내 도소를 정하도록 하였다.<sup>12)</sup> 2월 초에 시작된 복합상소 신원운동에서도 앞서

9) 오지영, 『동학사』 제2장, 74쪽.

10) 박찬승, 「1892, 1893년 동학교도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436쪽.

11) 『천도교회사초고』 포덕 34년조.

전개한 바 있는 두 차례의 신원운동과 마찬가지로 ‘공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광화문 복합상소 신원운동은 앞서 두 차례 신원운동을 통해 축적된 교단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더욱이 조선정부에 동학의 존재를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켰으며, 나아가 외국인들에게도 동학의 존재를 알렸다.<sup>13)</sup> 이러한 역량은 보은·금구집회로 이어졌다.

보은·금구집회의 두 번째 배경은 침략적 외국세력에 대한 배척이었다. 외국 침략세력의 경계는 이미 공주 신원운동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공주 신원운동 당시 제출하였던 의송에 의하면 “각 항구에는 왜국이 통상하여 이득을 독차지 하니 백성들의 생계는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폐해는 결국 ‘우리들’ 즉 동학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삼례 신원운동에서도 척왜양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서학이 날이 갈수록 흑세무민하고 있다”, “지금 서학과 왜놈들의 해독이 다시 들어와 날뛰고 있다”고 하여 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광화문 복합상소를 통해 눈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동학교단은 외국인 학당과 공관, 그리고 교회 등에 척왜양을 내용으로 하는 패서를 내걸었다. 우선 복합상소 신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2월 14일 미국인 기포드 학당에 서학은 경천이 아니라 ‘폐천’일 뿐이라는 패서가 붙였으며,<sup>14)</sup> 이어 18일에는 미국인 존슨 교회당에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방을 내걸었다.<sup>15)</sup> 이외에도 프랑스 공관, 일본 공관 등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패서를 붙였다.<sup>16)</sup>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척왜를 주장하였다.<sup>17)</sup> 이처럼 동학교단의 ‘척왜양

12)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50쪽.

13) 표영삼, 「교조신원운동」, 『한국사상』 24, 한국사상연구회, 1998, 203쪽.

14) 『구한국의교문서』 10,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718-719쪽.

15) 『일본외교문서』 5(한국편), 416-417쪽.

16) 「면양행견일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2, 13, 14, 20쪽.

17) “일본 상인들은 보아라. 하늘과 땅이 처 음 열 리고 그 사이에 인간이 위치하면서 경계가 만들어져 나라가 생기니 이때부터 삼강이 정해지고 오

인식은 신원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보은 집회를 통해 척왜양운동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3월 26일 보은 장내리에 모인 동학교인들의 대표들이 어윤중에게 제출한 <文狀>에서도 척왜양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전교하신 내용 중에 “너희들이 스스로 물러가 있으면 당연히 편안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처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전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다만 물러나 돌아가서 우리 임금의 훌륭한 덕이 크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뻐하였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왜와 서양은 저희들이 화친을 배척한다는[斥和] 이유로 임금을 헐박하여 동학인들을 소탕하도록 강제로 요청한다고 합니다. 창생이 도탄 속에서 통곡함은 오히려 애석함이 없지만, 신하와 백성의 잘못 때문에 오랑캐의 침략과 능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임금께서 능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의리가 있으니, 어찌 감히 살고자 하여 의리를 저버리겠습니까? 이렇듯 대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기어코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자 함인데<sup>18)</sup>

동학교인들은 자신이 창의한 것은 순연히 ‘오랑캐의 침략과 능멸을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볼 때 척왜양은 보은집회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보은집회의 세 번째 배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동학에 대한 강경한 탄압이었다. 앞서 두 차례의 신원운동과 광화문의 복합상소운동

---

문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상의 한 가운데 살아오면서 인륜을 아는 것을 인간이라 이르고, 인륜을 모르는 것은 오랑캐라 일컫는다. (중략) 하늘은 이미 너희들을 미워하고 우리의 스승이 이미 너희를 경계하였으니 죽느냐 사느냐는 너희에게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다시 말하노니 급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박찬승, 앞의 글, 352-353쪽).

18) 「취어」, 『동학농민혁명국영총서』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위원회, 2007, 34-35쪽.

으로 동학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공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동학교인에 대한 폐단은 줄어들었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이어졌다. 특히 광화문 복합상소와 척왜양 폐서 게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또는 외국인 공관에도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성균관 학생들과 유생들은 일제히 동학을 탄압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이단의 폐단은 예부터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학과 같은 류가 있었는데. (중략) 동학은 비방과 선동을 일삼아 재난의 싹이 될 것이다. (중략) 없들려 원컨대 신속히 엄명을 내리어 동학의 우두머리를 섬멸하여 그 뿌리와 싹을 없앤다면 국가를 위해 다행”<sup>19)</sup>이라고 하여, 국가의 재난이 될 동학을 근본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울에 있던 외국 공사관도 동학교인들의 행동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선정부에 압력을 넣어 동학을 엄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20)</sup>

이처럼 유생들과 외세의 압력에 고종은 동학교단의 복합상소를 개탄하면서 그 소두를 잡아 즉각 체포하고 나머지는 효유하는 한편 동학을 금단케 하였다. 또한 앞으로 동학의 소란행위를 막지 못하면 해당 관리에게 그 책임을 물어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21)</sup>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동학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어 동학교인의 재산과 목숨은 하루도 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동학교단은 광화문 복합상소 이후 자신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자 교단과 교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동학교단은 교인들의 신앙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 최시형은 교인들의 의중에 따라 복합상소를 하였지만 곧장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 둔 것은 신앙심이 약하였기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최시형은 교인들의 단속과 신앙심 제고를 위해 효유문을

19) 『일성록』 고종 30년 2월 25일자.

20) 이희근, 앞의 글, 159쪽.

21) 『일성록』 고종 30년 2월 26일자.

반포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 즉, 동학교단의 역량 강화, 척왜양에 대한 인식, 동학에 대한 탄압의 강화,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심 제고 등이 보은·금구집회의 배경이었다.

### 3. 보은·금구집회의 전개과정

복합상소를 위해 최시형은 보은 장내에 도소를 설치한 바 있었는데, 각지의 교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관의 탄압으로 삶의 근거지를 잃고 사망으로 떠돌던 교인들로 도소가 있는 곳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보다 한 곳에 집결함으로써 연대의식<sup>23)</sup>을 통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동학교단 최고지도자 최시형은 1893년 3월 10일 교조 환원 향례를 마친 후 손병희, 이관영, 이원팔, 임정준 등 교단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은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스승의 신원을 아직 펴지 못하였고 상소 후 하등의 칙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의 지목이 오히려 가중됨에 따라 교인의 생명과 재산을 安保하기 어려움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 대책을 요청하자 최시형은 “각처에 跋文하여 도인으로 하여금 (보은 장내에) 齊會케 하라”고 지시하였다.<sup>24)</sup> 그리고 즉시 전국 각지의 집주들에게 관내 교인을 지도하여 보은 장내로 집결하도록 통유문을 띄웠다.<sup>25)</sup> 통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우리나라가 단군 기자 이래 예의지국인 것을 천하

22) 『천도교회월보』 31, 1913. 2, 21-22쪽; 『천도교회사초고』 포덕 34년조.

23) 김용환, 「동학교조신원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상관연동」, 『동학학보』 25, 동학학회, 1912, 25-26쪽.

24)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54-55쪽.

25) 『천도교회사초고』 포덕 34년조.

가 다 알고 있으나, 근자에 이르러 안으로는 덕을 닦아 바르게 다스리는 정사가 미거하고 밖으로는 침략 세력이 더욱 떨치고 있다. 관리들은 매우 포악하여 제멋대로 권력과 부를 행사하며 강호들은 다투어 토색질을 하니 기강이 문란해졌다. (중략) 우리들은 사문지화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으나 스승의 억울함을 아직 풀지 못하여 장차 때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중략) 이제 다시 큰 소리로 원통한 일을 진정하고자 포유하니 각포 교인들은 기한을 맞추어 일제히 모여라. 하나는 衛道尊師이며 하나는 輔國安民의 계책을 마련하고자 한다.<sup>26)</sup>

보은집회는 스승의 억울함을 씻어 줄 신원 즉 '위도존사'와 침략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보국안민'이 그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다음날 보은 관아 삼문 앞에 보은집회를 알리는 방문을 게시하였다.

(전략) 지금 倭와 서양이라는 적이 마음속에 들어와 큰 혼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나라의 도읍지를 살펴보면 마침내 오랑캐들의 소굴이 되어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진왜란의 원수와 병인양요의 수치를 어찌 차마 말할 수가 있으며, 어찌 차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방 삼천리강토는 모두 짐승의 자취로 가득하고, 5백년 종묘사직은 장차 기장밭 黍稷 또는 黍離之歎이 될 것이니, 仁·義·禮·智와 효·悌·忠·信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하물며 왜적은 도리어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재앙이 될 빌미를 숨겼다가 그 독기를 뿜어내고 있어, 위급함이 아침저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생각하여 편안하다고 말하니, 지금의 형세는 어찌 불이 붙은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비록 초야에 있는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그래도

---

26) 『천도교회사초고』 포덕 34년조.

선왕의 법을 따르면서 임금의 땅을 경작하고 부모를 봉양하며 살고 있으니, 신하와 백성을 구분하여 귀하고 천한 것에는 비록 차이가 있다라도 어찌 충성하고 효도하는 것에 다름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미약한 충성이나마 나라에 바치고자 하나 위에 알릴 길이 없습니다.(후략)<sup>27)</sup>

그런데 보은집회를 알리는 방문은 교조의 신원보다는 척왜양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신원이 우선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보국안민을 위한 척왜양임을 앞서 세 차례의 신원운동을 통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척왜양이라는 명분을 통해 정부와 유럽으로부터 동학을 공인받고자 하는 것이었다.<sup>28)</sup>

한편 동학교단으로부터 통유문을 받은 각지의 교인들은 다음날인 3월 11일에 이미 수만 명<sup>29)</sup>이 모여들었다.<sup>30)</sup> 이는 그만큼 교조의 신원을 통한 ‘동학 공인’이 절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형은 3월 16일 교인들을 소집하는 두 번째 통유문을 띄웠다.

지금 이렇듯 왜와 서양을 배척하는 의리는 충성과 의기가 있는 선비와 백성[士民]이라면 누가 감히 옳지 않다고 하겠는

27) 「취어」, 19쪽.

28) 박찬승, 「1892, 1893년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 361쪽.

29) 보은집회에 모여든 동학교인의 수는 기록마다 다양하다. 『술산일기』에는 10만 명, 『오하기문』에는 8만 명, 어윤중 「장계」와 「취어」 그리고 천도교단 기록은 수만 명, 『속음청사』에는 2만 7천 명과 7만여 명, 『일본외교문서』에는 2만 3천 명, 『광서조중일교섭문서』에는 2만 7천 명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면양행견일기」에는 ‘7만여 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보은집회에 모인 동학교인은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0) 관변기록 기록에는 ‘3월 13일’로 되어 있지만, 이미 보은에 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복합상소 이후 대부분의 동학교인들은 곧이어 보은에서 신원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보은 장내리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미 통유문이 내린 익일인 3월 11일부터 모여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보은에 도소가 설치된 1893년 1월에도 이미 적지 않은 교인들이 모인 바 있으며, 이들은 교조의 신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해월 최시형은 광화문 복합상소를 지시하였다.

가? 비록 충성과 의리는 같더라도 道人和 俗人は 아주 달라 뒤섞여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으니, 각각 좌석을 나누어서 활발하게 거사할 것을 의논해야 하며, 그밖에 우매하고 지각없이 다만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농업에 힘쓰는 것이 옳다. 오로지 놀면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다가 갑자기 큰일을 포기하겠는가? 이와 같이 삼갈 것을 명령한 이후에도 한결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군율로 다스리고, 계시한 글을 명확히 살피 시행하는 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통문을 보내는 것은 무릇 사람의 道가 中에 위치하여 天時를 받들고 땅의 이치에 순응함으로써 위를 섬기고 아래를 기르라는 것이다. 자식 된 사람은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섬기고, 신하가 된 사람은 절개를 세워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야말로 人倫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다. (중략)

충과 효를 행할 곳에 뜻을 세워 죽기로 맹세한 것이 변하지 않고, 가정을 정돈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책무에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하물며 왜적은 해와 달을 함께 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인데, 짐승과 같은 무리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또한 차마 무슨 말을 하겠는가? 바야흐로 지금 나라의 형편은 거꾸로 매달린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인데 아직도 그 해법을 모르고 있으니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략)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순수한 덕과 인자한 너그러움으로 모든 사무를 살펴보시는데, 안으로는 현명하고 어질게 보좌하는 신하가 없고, 밖으로는 뛰어난 용감한 장수가 없어, 밖으로 적들이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며 아침저녁으로 위협하고 있다.

삼가 원하건대 여러 도인과 선비들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요망한 기운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종묘사직을 극복하여 다시 빛나는 해와 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찌 선비와 군자들이 충성을 하고 효도를 하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어질다[仁]는 것은 낳아서 기르는 봄날과 같고, 의롭다[義]는 것은 거두어서 저장하는 가을과 같다. 지혜롭고 어진 것[智]

仁]이 비록 좋은 덕이기는 하지만 용기가 아니면 도달할 수 없으니, 삼가 원하건대 여러 군자들은 본연의 의리와 기개에 힘써 이 나라에 큰 충성과 큰 공적을 세운다면 매우 다행이겠다.<sup>31)</sup>

이러한 상황에서 보낸 두 번째 통유문에는 교조신원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왜적은 해와 달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이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라고 하였다. 즉 왜와 서양을 배척하는 의리로서 척왜양을 강조하였다.

동학교인들은 낮에는 후동 천변에 진을 치고 밤에는 도소가 있는 장내리와 인근 동리의 민가에 유숙하였다. 또한 이들은 산 아래 평지에 성을 쌓았다. 길이는 1백보, 넓이도 1백보, 높이는 반장 남짓하였으며 사방으로 문을 내었다.<sup>32)</sup> 성이 완성되자 최시형은 모여든 교인들보다 원활하게 통솔하기 위해 보은 장내리에 대도소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머물면서 큰 기를 내세우게 하고 대오를 정비하는 등 점차 조직을 정비하였다. ‘斥倭洋倡義’라고 쓴 큰 깃발이 세우는 한편 참가 지역을 표시하는 忠義, 善義, 尙功, 淸義, 水義, 廣義, 洪慶, 靑義, 光義, 威義, 竹義, 振義, 沃義, 茂慶, 龍義, 黃豐, 金義, 忠岩, 江慶 등의 글자를 쓴 오색 깃발이 무수히 휘날렸다.<sup>33)</sup> 동학교인들은 낮에는 주문을 외우고 밤에는 장내리 부근에서 숙박을 하였다.

이처럼 각지에서 교인들이 모여들자 최시형은 유력한 지도자들을 대접주로 임명하는 한편 포명을 부여하였다. 당시 대접주와 포명은 다음과 같다.

忠義包 大接主 손병희

忠慶包 大接主 임규호

31) 「취어」, 26-28쪽.

32) 「취어」, 22쪽.

33) 「취어」, 22쪽. 이들 깃발의 지역명은 水義는 수원, 振義는 진위, 龍義는 용인, 光義는 광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淸義包 大接主 손천민  
文淸包 大接主 임정준  
沃義包 大접주 박석규  
關東包 大접주 이원팔  
湖南包(全州包) 大접주 남계천  
尙功包 大접주 이관영  
報恩包 大접주 김연국  
西湖包 大접주 서장옥  
德義包 大접주 박인호  
金溝包 大접주 김덕명  
茂長包 大접주 손화중  
扶安包 大접주 김낙철  
泰仁包 大접주 김기범(김개남)  
詩山包 大접주 김낙삼  
扶豐包 大접주 김윤석  
鳳城包 大접주 김방서  
沃溝包 大접주 장경화  
完山包 大접주 서영도  
公州包 大접주 김지택  
高山包 大접주 박치경  
淸風包 大접주 성두환  
內面包 大접주 처기석  
洪川包 大접주 심상훈  
麟蹄包 大접주 김치운  
禮山包 大접주 박희인  
旌善包 大접주 유시헌  
大興包 大접주 이인환  
德山包 大접주 손은석  
長興包 大접주 이방언

牙山包 대접주 안교선<sup>34)</sup>

이들 포명을 볼 때 당시 동학 조직이 있었던 경상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등 북쪽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보은집회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학교인들이 각지에 몰려들자 보은군수 이종익은 조정에 보고하는 한편 公兄들을 동학대도소로 보내 자신의 관내에서 발생한 폐해를 들어 집회 해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학교단은 이를 거부하였다.<sup>35)</sup> 결국 보은군수 이종익은 직접 대도소를 찾아와 “동학을 금지하고 단속하라는 일을 조정의 칙령과 감영의 공문으로 여러 차례 엄중하게 보냈는데, 일제히 돌려보내지 않고 무리들을 불러 모아 이러한 도회를 거행한 것은 진실로 조정의 칙서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고, 큰 변괴와 관련된 것이니, 각각 누우치고 깨달아 즉시 해산하여 스스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이번에도 동학교단은 “창의한 것은 결코 다른 이유는 없고, 오로지 왜와 서양을 배척하기 위한 의리이니, 비록 巡營의 칙령과 主官(보은수령)의 설득이 있어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하면서 보은군수의 해산 명령도 거부하였다.<sup>36)</sup>

이처럼 보은군수가 계속 해산을 종용함에 따라 동학교단은 교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문을 내걸었다.

무릇 왜와 서양이 짐승같이 천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삼천리에서는 비록 작은 어린아이이라도 그것을 모르지 않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巡相(감사)과 같이 나이가 많고 성숙하며 명석하게 살피는 분이 도리어 倭와 서양을 배척하는 우리들을 사악한 무리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34) 이들 포명과 대접주는 『천도교서』, 『시천교종역사』, 『천도교회사초고』, 『동학사』, 『갑오피난록』, 『천도교창건사』 등을 정리한 것이다.

35) 「취어」, 20-21쪽.

36) 「취어」, 23쪽.

들이 짐승같이 천한 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바른 무리이겠는가? 왜와 서양을 공격하는 선비들을 잡아 가두어 처벌한다면 화의를 주장하고[主和]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은 높이 상을 주어야 하는가?

오호라. 애통하도다! 운명인가? 천명인가? 어찌 우리 순상과 같은 명석함으로도 이같이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함이 심한가? 이 통문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혹시 미혹된 자들이 왜와 서양에 신하노릇 하면서 官의 명령에 순종할까 두렵기 때문이다.<sup>37)</sup>

즉 동학교단은 ‘척왜양’을 내세우면서 교인들의 흔들림을 막고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道는 바로 弓乙의 道인데,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 어찌 긴 말을 하겠는가? 여러 말 할 것 없이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sup>38)</sup>하면서 교인을 단속하였다. 이를 통해 연대의식을 강화시켰다.

동학교단과 보은관아 사이에 해산과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동안 보은군수 이중익과 충청감사 조병식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조정은 보은집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3월 18일 호조참판 어윤중을 양호도어사로 임명하여<sup>39)</sup> 동학교인들을 효유하여 집회를 해산시키도록 하였다.<sup>40)</sup> 양호도어사로 임명받은 어윤중은 3월 26일 보은에 도착하자 동학대도소에 왕명에 따라 빨리 해산하라는 효유문을 보냈다.<sup>41)</sup> 그리고 동학교단의 대표들을 만나 집회를 해체하고 돌아가 농사지을 것을 권유하였다. 정부의 해산명령을 받은 동학교단은 “수십만 사람들을 어떻게 관의 명령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들은 비록 조그마한 무기는 없지만 막강한 왜양을 무찌르려고 한다”<sup>42)</sup>

37) 「취어」, 24쪽.

38) 「취어」, 25쪽.

39) 『일성록』 고종 30년 3월 19일자; 『고종실록』 고종 30년 3월 19일자.

40) 「취어」, 28-29쪽.

41) 「취어」, 28-29쪽.

42) 「면양행견일기」, 21쪽.

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왕의 회답을 받으면 해산할 것이라고 하였다.<sup>43)</sup>

이에 어윤중은 “너희들의 뜻을 전할 터이니 해산하라”고 종용하였지만 동학교단은 여전히 왕의 회답을 요구하였다. 즉 왕의 회답을 받으면 척화의 뜻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물러가겠다고 하였다.<sup>44)</sup> 이러한 동학교단의 조치는 정부의 압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적인 ‘신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교단이 보은집회의 전면에는 ‘척왜양’이라는 명분으로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학 공인’이었으며,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지의 동학교인들이 여전히 보은 장내리로 모여들자, 어윤중은 동학교단의 요구 즉 첫째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 철회, 둘째 보은집회 대의는 척왜양, 셋째 서학이 동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넷째 퇴회할 명분을 달라는 것 등을 조정에 보고하였다.<sup>45)</sup> 뿐만 아니라 어윤중은 狀啓로써 동학교단의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보은집회의 본뜻이 ‘척양척왜이며 다른 뜻이 없다’고 하였다.<sup>46)</sup>

이에 3월 28일 고종은 동학교단을 해산시키려는 율음을 내려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또한 너희들은 감히 돌을 쌓아 진영을 만들고, 당간에 깃발을 만들어 걸고서, 義를 주창한다고 일컬으면서 글을 써서 방을 붙여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한다. 너희들이 비록 어둡고 몽매하다고 하지만, 어찌 나라의 큰 의리와 조정의 약속을 듣지 아니하면서 감히 핑계를 대고 재앙을 떠넘겨 사람들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농민에게 농사를 지을 시기를 놓쳐 버리게 하니, 이름은 비록 義를 주창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난리를 일으키는 것이다.

43) 「취어」, 29-30쪽.

44) 「취어」, 32쪽.

45) 「취어」, 32-34쪽.

46) 「취어」, 32쪽.

너희들은 계속 뒤따라 모여든 많은 무리를 믿고 스스로 방자하여 조정의 명령도 듣지 않으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찌 이러한 의리가 또 있었겠는가? 이것은 모두 나 한 사람이 너희들을 이끌어 편안하게 하지 못한 탓이며, 또한 여러 고을의 목민관과 수령들이 너희들을 부추겨 벗겨먹고 곤박하게 괴롭혔기 때문이다. 탐욕스러운 장수와 마음이 시키면 아전들은 장차 처벌을 할 것이다. 오직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그 백성들이 스스로 의롭지 못한 것에 빠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기거늘 어찌 어둠을 열어 밝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길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에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하여 너희들의 고충을 모두 알았다. 이에 行護軍 魚允中을 宣撫使로 삼아 나를 대신하여 달려가서 널리 타이르고 설득하게 한 것인데, 이 또한 먼저 가르치고 뒤에 처벌하는 것이 옳다. 너희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여겨 반드시 감동하고 서로 알려 해산하도록 하라.

너희들은 모두 양민이니 각각 스스로 물러나 돌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토지와 재산을 되돌려줄 것이므로, 이로 하여금 편안히 생업에 힘쓰게 할 것이니 의심하거나 겁을 먹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설득하는 말을 들은 후에도 너희들이 한결같이 고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연히 큰 처분을 내릴 것이다. 어찌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같은 하늘을 덮고 살 수 있도록 용납하겠는가? 너희들은 시원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라.(후략)<sup>47)</sup>

고종의 윤음은 동학교단의 보은집회를 ‘倡義’가 아니라 ‘倡亂’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교인을 탐학하는 수령과 탐욕의 이서배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동학교단은 척왜양을 내세우며 동학 공인을 기대하였지만 그 희망은 무너지고 말았다.

4월 1일 윤음을 전달받은 동학교단은 5일간의 시간을 요구하였지만 어윤중은 이를 거절하고 3일 이내에 해산하라고 강요했다.<sup>48)</sup> 더욱이 4

47) 「취어」, 39-40쪽.

월 2일에는 청주 영장이 1백 명의 병영군을 이끌고 보은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군대까지 동원하여 집회를 해산하려고 하자 동학교단은 이를 수용하여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산이 결정되자 4월 2일 오후 3시경부터 4월 3일 오전 9시까지 경기도 수원집을 비롯하여 용인집, 양주집, 여주집, 안산집, 송파집, 이천집, 안성집에 이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각 집에서 돌아왔다.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의 일부 집에서는 4월 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모두 해산하였다.<sup>49)</sup>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시형 등 동학지도부는 4월 2일 밤에 장내리를 빠져나갔다.<sup>50)</sup> 4월 2일 오후부터 해산하기 시작하여 동학교인들은 3일 오후에는 대부분 장내리를 떠났다. 동학교단은 어윤중과 약속한 3일 이내 즉, 4월 1일부터 3일인 4월 3일 모두 해산한 것이다. 동학교인들이 해산한 것을 확인한 어윤중은 이날 오후 4시경 전라도 금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동학교인을 해산시키기 위해 보은을 출발하였다.<sup>51)</sup>

한편 보은 장내리에서 동학교인들이 집회를 하는 동안 전라도 금구에서도 집회를 하였다. 금구집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금구집회는 보은집회와 거의 동시에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금구집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3월 15일이다. 『영상일기』에 의하면 3월 15일자에 “사이에 전해 들으니, 삼남의 동학 무리들이 각 도에 모였다. 충청도는 보은에서 모이고, 영남은 밀양에서 모이고, 본도에서는 금구에서 모였다.”<sup>52)</sup>고 하였다. 즉 전해 들어서 기록한 것이 3월 15일이었고, 또한 충청도 보은에서도 동학교인들이 모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금구집회는 보은집회와 같은 시기에 개최하였

48) 「취어」, 42쪽.

49) 「취어」, 46-47쪽. 어윤중이 4월 3일 금구집회를 해산시키려고 보은을 출발하였다. 이는 어윤중이 이때 보은을 떠난 것은 동학교인들이 대부분 해산한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50) 「취어」, 41쪽.

51) 「취어」, 46쪽.

52) 「영상일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9, 10쪽.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윤중의 「취어」와 『일성록』에도 금구집회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전라도 도회가 이번 22일에 도착한다”라고 합니다.<sup>53)</sup>

(왕이) “... 호남에서는 금구에서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전주감영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먼저 그 소굴을 둘러 빼어서 금단하고 일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문현이 “금구는 전주에서 30리 가량 됩니다. 금구 원평에 정말 취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sup>54)</sup>

전자는 3월 20일에 탐지한 것을 21일에 보고한 것이고, 후자는 고종과 김문현의 대화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3월 20일 이전에 금구집회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탐지하거나,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문현이 고종에게 보고하기 위해 올라온 시간을 고려해본다면 늦어도 3월 13일경이라 할 수 있다.<sup>55)</sup> 이는 금구집회가 보은집회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구집회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규모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일단 금구집회에 모인 인원은 대체로 1만 명 정도였다. 『영상일기』에 의하면 ‘수만 명’, 「동도문변」에는 ‘만여 명’,<sup>56)</sup> 「면양행견일기」에는 ‘수만’<sup>57)</sup>과 ‘만여 명’<sup>58)</sup>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구집회에 모인 인원

---

53) 「취어」, 22쪽.

54) 『일성록』 고종 3월 21일.

55) 김문현이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볼 때 7일 정도로 추정된다.

56) 「동도문변」,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157쪽.

57) 「면양행견일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2, 22쪽.

58) 「면양행견일기」, 26쪽.

은 적어도 1만 명이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구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동학과 별도의 세력으로 구분하려고 하지만<sup>59)</sup> 앞의 기록인 『영상일기』, 「취어」, 「면양행견일기」에 의하면 금구에 모였던 세력이 ‘보은으로 간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동학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윤중이 보은집회 해산 이후 금산군에 이르렀을 때 금구집회에서 올라온 동학교인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금구에) 모인 당은 도주 최시형의 지시로 왜양을 물리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금구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동학교인이며 동학교단의 지시로 모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보은집회에 합류하기 위해 진산에 이르렀으나 어윤중으로부터 보은 장내리의 동학교인들이 이미 해산하였다는 말을 듣고 금구로 돌아가 함께 해산하였다.<sup>60)</sup> 이상으로 살펴본 보은·금구집회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보은·금구집회의 전개 추이

경과	내 용
3.10	교조신원 논의, 최시형 1차 통유문으로 동원령 내리다
3.11	동학교단, 보은관아 삼문에 적왜양으로 보은집회 알리는 통고문 게재하다 동학교인 수만 명 보은 장내리에 모여들다
3.13	금구에 동학교인들 모이다
3.15	보은군수 이종익 관속을 보내 보은집회 해산을 종용하다
3.16	동학교단 2차 통유문으로 동원을 촉구하다
3.17	조정에서 어윤중을 양호도어사로 임명하다
3.18	동학교인들 보은 장내에서 성을 구축하다
3.20	동학교인들 ‘적왜양창의’ 깃발과 포명과 대접주를 임명하다 각지의 포명을 알리는 오색 깃발 날리다

59) 정창렬, 「동학교문과 전봉준의 관계-교조신원운동과 고부민란을 중심으로-」, 『19세기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60) 「면양행견일기」, 36쪽.

3.22	보은군수 이종익 동학의 동향 조정에 보고하는 한편 동학 대도소 찾아가 해산을 명명하다. 동학교단 이에 거부하다 금구에 모인 교인들 보은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있다
3.23	동학교단에서 교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방문 내걸다
3.24	전주에서 동학교인 30명 보은 장내리에 도착하다
3.26	양호도어사 어윤중 보은에 이르러 효유문 발표하다 동학교단 왕의 해답이 있으면 해산하겠다고 하다 어윤중 재차 동학교단에 해산을 촉구하다 동학교단 어윤중의 해산 촉구를 거부하다 어윤중 동학교단의 요구를 조정에 보고하다 동학교인들 계속 보은 장내리로 모이다
3.27	김문현 금구에 동학교인 1만여 명 모였다고 보고하다 호남의 영광 등지에서 1백여 명 보은 장내리에 도착하다
3.28	고종 윤음을 내리다
4.1	어윤중 고종 윤음 동학교단에 알리다. 3일 이내 해산할 것을 통첩하다
4.2	청주영장 관군을 이끌고 보은에 도착하다 동학교단 해산을 결정하다. 교인들 오후 3시부터 해산을 시작하다 이날 밤 최시형, 서병학 등 장내리를 빠져나가다
4.3	동학교인들 모두 해산하고 돌아가다 어윤중 보은을 떠나 금구로 향하다
4.5	어윤중 진산에서 보은으로 가는 금구 동학교인들을 만나 해산시키다
4.6	금구에 모인 동학교인들 해산하다
4.10	조정에서 서병학, 김봉집(전봉준), 서장옥을 잡아들이도록 명하다

이로써 보은과 금구에 모였던 동학교인들은 정부의 압력으로 비록 해산을 하였지만 이듬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4. 보은 · 금구집회와 동학농민혁명

앞서 보은집회와 금구집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동안 보은집회와 금구집회를 이듬해 전개되는 동학농민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파악하였다. 신용하는 “보은집회는 이듬해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바로 전주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sup>61)</sup> 이러한 평가의 핵심은 보은·금구집회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주도세력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이를 해명하는 것이 보은·금구집회와 동학농민혁명의 관계성 즉, 보은·금구집회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먼저 보은·금구집회의 성격을 살펴보자. 보은·금구집회의 시작은 교조신원운동의 연장선이었다. 때문에 동학교단에서 교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우선 교조의 신원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동학을 탄압하였던 지방 관리 즉, 탐관오리의 척결을 주장하였다. 이는 보은집회를 모의하는 단계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교인을 동원하는 1차 통유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교조신원을 주장하였지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자 ‘척왜양’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보은관아에 내건 통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2차 통유문을 통해 교조신원뿐만 아니라 ‘척왜양’이 보은집회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후 보은집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동학교단은 대내적인 교조신원보다는 대외적인 척왜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척왜양이라는 대외적인 슬로건을 통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동학 공인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학교단 지도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척왜양이 일반교인들에게도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동학교단이 주도하였던 공주, 삼례, 광화문 복합상소의 신원운동에서는 교조신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척왜양보다는 교조신원이 교인들을 동원하는데 수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척왜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sup>62)</sup> 다만 척왜양에 대한 인식은 아직 현

61)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51쪽.

62) 척왜양에 대한 인식은 공주교조신원운동 당시 이미 보여주고 있다.

“방금 서양 오랑캐의 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뒤섞였으며, 왜놈 우두머리의 독수가 방자하게 외진에서 다시 국법을 어겨가며 험상하고 요란스러운

실적으로 와 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은집회 이전에는 척왜양보다는 ‘교조신원’이 일반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화문 복합상소 이후 척왜양을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렇다고 척왜양이 교단 내부적으로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동학교단은 척왜양을 대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척왜양은 동학교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었다. 때문에 동학교단은 척왜양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국왕뿐만 아니라 충의의 선비와 관료도 함께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63)</sup> 또한 동학교인들이 모여든 3월 22일 ‘동학인방문’에도 척왜양의 기치를 밝혔으며, 3월 26일 어윤중과 대면에서도 “척왜양은 위국가효충”이라고 하여 척왜양의 기치를 내세웠다. 또한 금구집회도 “도주 최시형의 분부에 따라 척왜양을 하게 된 것”이라 하였는데, 금구집회 역시 척왜양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이로 볼 때 보은집회와 금구집회는 척왜양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은·금구집회의 척왜양은 1894년 1월 10일 고부기포에서 비롯된 동학농민혁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부기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격문」과 「사발통문」에도 척왜양을 내세웠으며, 이후 무장포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격문에서 척왜양을 주장하였다. 이로 볼 때 보은집회의 척왜양은 동학농민혁명의 슬로건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은집회에서 척왜양보다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탐관오리 척결을 여전히 제기하였다. 이 점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보은집회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전단계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

을 임금의 수레바퀴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은 이를 절치부심하고 있다.”

63) 이러한 내용은 보은 삼문 밖에 붙인 방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죽기로 서약하고 왜양을 쓸어버리고 나라에 보답하는 의리를 다하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각하도 뜻을 같이하여 협력해서 충의의 선비와 관료들을 추려 모아 나라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있다.

다음으로 보은·금구집회의 주도세력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적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동학에 들어왔으며, 특히 금구집회를 주도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sup>64)</sup>

관의 탐문에 의하면 보은집회의 주도인물은 다음과 같다.

(가) 우두머리 최시영(최시형)이고, 다음 순위의 지도자는 서병학 이국빈 손병희 손사문(손천민) 강가 신가이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의 접장은 황하일 서일해(서장옥)이며, 전라도 접장과 운량도감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도사이다.<sup>65)</sup>

(나) 그 우두머리는 문경의 이름을 모르는 최반, 그 다음은 충주 서병학, 청주 손병희, 충주 이국빈, 운량도감 이름을 모르는 충주 전도사라고 한다.<sup>66)</sup>

(다) 괴수 최시형은 나이가 60 남짓으로 상주에 살고, 서병학은 청안에 살며 (중략) 청주에 사는 이국빈은 장군의 지락이 있는데<sup>67)</sup>

(라) 전라도는 모두 금구 원평에 모였으며, 괴수는 보은에 사는 황하일, 무장접주 손해중(손화중)으로<sup>68)</sup>

(마) 호서의 서병학과 호남의 김봉집과 서장옥은 모두 각각 該道의 도신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營獄에 가두고 엄하게 조사하여 登聞하게 하며<sup>69)</sup>

64) 이와 같은 연구는 정창렬과 배항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65) 「취어」, 22-23쪽.

66) 「면양행견일기」, 22쪽.

67) 「면양행견일기」, 25쪽.

68) 「면양행견일기」, 26쪽.

69) 『고종실록』, 고종 30년 4월 10일.

위의 내용은 어윤중의 「취어」와 「변양행견일기」, 그리고 『고종실록』에 실려 있다. (가), (나), (다)는 보은집회이고, (라)는 금구집회, 그리고 (마)<sup>70)</sup>는 좀 애매하지만 보은집회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에서 서병학과 서장옥을 이미 보은집회의 핵심인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 보고 내용인 보은집회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금구집회보다는 보은집회였다고 보여진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보은집회의 최고 책임자는 최시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금구집회에 모인 교인들도 ‘도주 최시형의 분부’에 따라 모였다고 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보은·금구집회는 최시형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보은·금구집회의 주도 인물은 서병학, 이국빈, 손병희, 손사문(손천민), 황하일, 서일해(서장옥), 손해중(손화중), 김봉집(전봉준),<sup>71)</sup>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윤량도감 전도사<sup>72)</sup>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던 보은집회에서 임명된 대접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약간의 논란이 되는 것은 (라)에서 금구집회를 주도하였다는 황하일과 손화중은 보은집회에 참여하였다. 즉 (가)에서는 황하일이 집장으로,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손화중은 정읍대접주로 임명되었다.

---

70) 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兩湖宣撫使 魚允中의 장계를 보니, ‘綸音을 선포한 후에 報恩에 모였던 匪賊들은 이미 다 귀순하거나 해산하였으며 무리를 모은 연유는 이미 徐丙鶴의 입에서 드러났습니다. 발표한 通文과 게시한 榜文에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정상을 헤아릴 수 없으니 查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湖西의 서병학과 湖南의 金鳳集과 徐長玉은 모두 각각 該道の 도신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營獄에 가두고 엄하게 조사하여 登聞하게 하며, 호서 전도신 趙秉式은 높은 품계의 관리로서 監司의 직책을 맡은 만큼 그 맡은 책임이 더욱 각별한데 무리를 모은 연유에 대한 보고를 지체한 잘못이 이미 御史의 규탄에 올랐으므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刊削의 刑典을 시행하소서.”

71) 김봉집이 전봉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지영의 『동학사』로 본다. 이는 『승정원일기』 고종 4월 10일자 ‘김봉집’을 『동학사』에서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 ‘김봉집’을 ‘전봉준’으로 기록하였다.

72) 전도사에 대한 해석도 다양한데, 일설에는 전봉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황하일과 손화중이 금구집회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은·금구집회를 주도한 인물들은 대부분 동학농민혁명에서 대접주 또는 집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부기포를 주도한 전봉준 역시 교조신원원운동과 보은·금구집회에 참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김개남과 손화중 역시 보은집회에서 대접주로 임명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보은집회에서 대접주로 임명받는 이들은 각지에서 기포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중 청풍대접주 성두한은 전봉준, 손화중과 함께 교형을 당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은·금구집회는 성격이나 인적 조직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 단계로써 중요한 매개고리라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보은·금구집회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보은·금구집회의 배경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주, 삼례 그리고 광화문 복합상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학교단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나아가 연대의식으로 발전하였으며, 보은집회에서도 연대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척왜양이다. 교조신원운동 초기에도 척왜양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광화문 복합상소를 통해 이를 현실적 과제로 새롭게 인식하였다. 때문에 보은집회를 소집하는 초기에는 교조신원과 탐관오리의 척결을 내세웠지만 점차 척왜양을 전면에 내세웠다. 셋째는 동학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공주, 삼례, 광화문 복합상소를 거치면서 관찰사나

국왕으로부터 안업에 힘쓸 수 있도록 탐관오리의 척결을 약속받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학의 탄압은 강화되었다. 넷째는 교인의 신앙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교조신원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으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조직의 역량강화, 척왜양, 동학의 탄압, 신앙심 제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보은과 금구에서 대규모의 집회가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보은·금구집회의 전개는 3월 10일부터 4월 초순까지 약 한 달간 이어졌다. 동학교인은 두 차례의 통유문을 통해 교인들을 동원하였고, 이에 3월 중순 3만여 명이 보은 장내리로 집결하였다. 동학교단은 이를 통해 대접주를 임명함으로써 조직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조정은 어윤중을 양호도어사로 임명하여 보은집회를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동학교단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고종의 율음을 받고 해산하였다. 이러한 보은집회가 전개되는 동안 전라도 금구에서도 동학교인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금구집회 역시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전개되었고, 보은집회가 해산됨에 따라 금구집회도 해산하였다. 이로 볼 때 보은집회나 금구집회는 동학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보은·금구집회는 성격과 인적 조직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보은·금구집회에서 전면으로 내세웠던 척왜양은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으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척왜양은 고부기포와 백산대회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동안 각종 격문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적 조직에서도 보은집회와 금구집회에 참여하였던 주요인물들이 동학농민혁명에서도 주도세력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여는 고부기포의 주도인물인 전봉준을 비롯하여 김개남, 손화중, 그리고 손병희 등은 보은집회에서 대접주로 임명되거나 접장 등으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은·금구집회는 동학교단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논문접수: 2013. 11. 2, 심사시작: 2013. 11. 15, 심사완료: 2013. 12. 1]

주제어 : 동학, 최제우, 최시형, 척왜양, 동학농민혁명, 교조신원운동

【참고문헌】

『도원기서』

『일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구한국외교문서』

『일본외교문서』』

『천도교창건사』

『천도교회월보』

『천도교회사초고』

『고종실록』

김용환, 「동학교조신원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상관연동」, 『동학학보』  
25, 동학학회, 1912

박대길, 「東學의 교조신원운동과 斥倭洋」, 『전북사학』 37, 전북사학회,  
2010

박맹수, 「敎祖伸冤運動期 參禮集會에 대한 再檢討」, 『한국독립운동사  
연구』2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찬승, 「1892, 1893년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1894  
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배향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  
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삼 암, 「교조신원운동」, 『한국사상』 24, 한국사상연구회, 1998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의 격문 분석-고부기포·무장기포·백산대회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  
회, 2011

성주현,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申榮祐, 「1893년 報恩集會와 東學教團의 役割」, 『實學思想研究』 10·  
11, 母岳實學會, 1999

-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 우 윤, 「1892~93년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양상과 그 성격」, 『忠北學』 5, 충청북도 忠北學研究所, 2003
- 이경원, 「교조신원운동기 동학지도부의 유교적 측면에 대한 고찰」, 『역사연구』 19, 역사학연구소, 2010
- 이기식, 「1892~93년 동학교도의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 인하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3
- 이희근, 「동학교문의 보은·금구집회」, 『백산학보』 42, 1992
- 表映三, 「東學의 辛未 寧海 教祖伸冤運動에 關한 小考」, 『韓國思想』 21, 韓國思想研究會, 1989
- 표영삼, 「보은 척왜양창의운동」, 『한국사상』 24, 한국사상연구회, 1998

<ABSTRACT>

## **Launching of Rallies at Boeun and Geumgu a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Sung, Ju-hyeon

The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was in a turbulent period. It had to solve two challenges; internally, breakup of feudal order, and externally, overcoming of a crisis of the Western power's occupation of the East. In the center of this turbulence was 'DONGHAK.' DONGHAK was named by Suwoon Choi, Jae-woo on April 5, 1860. The ideological context of DONGHAK can be summarized as egalitarianism based on 'Serving God within me', national identity idea based on exclusion of Japan and the West, world-reforming ideology based on messianic reformist idea, have and have-nots's 'Daedong Idea', etc. and such an ideological context was a message of salvation to the public who were oppressed and dreaming of a new world. DONGHAK which began its propagation from 1861 expanded its congregation as much as to launch 'Gyojoshinwon Movement' (doctrine-based grudge-relieving movement) through the uprising at Yeonghae in 1871. However, DONGHAK got to the state of total collapse due to 'Yeonghae Doctrine-based grudge-relieving movement' but its congregation was gradually recovered. Once DONGHAK recovered its congregation, the DONGHAK religious body spread the movement to obtain the freedom of religion, which is called 'Gyojoshinwon Movement', at Gongju in October, Samrye in November in 1892 and in front of Gwanghwamun in February the next year. DONGHANK went on to

launch ‘Cheokwoeyangchang Movement’ (exclusion of Japan and the West and fight for a great cause) through the rally at Boeun and Geumgu. In its initial period, the movement was a pure religious movement, but with the elapse of time, it was converted to political movement.

The background of the rally at Boeun and Geumgu can be summed up as four aspects. First, the DONGHAK religious body’s capability was reinforced in the process of its being linked from Gongju to Samrye, and the Gwanghwamun combined appeals to the king. Such an aspect developed into the awareness of solidarity, which was well displayed even at the Boeun rally. Second, even in the early period of the ‘Gyojoshinwon Movement’, DONGHAK had the awareness of exclusion of Japan and the West, but they freshly perceived this awareness as a realistic challenge through the Gwanghwamun combined appeals. Therefore, DONGHAK set forth ‘Gyojoshinwon’ and eradication of corrupt officials in the early period of holding the Boeun rally, but gradually, DONGHAK set forth the exclusion of Japan and the West to the fore. Third, the government’s oppression of DONGHAK continued. The provincial governor or the king promised to root out corrupt officials so that the populace could devote themselves to work comfortably while DONGHAK went through Gongju & Samrye rallies and Gwanghwamun appeals, but the promise wasn’t fulfilled at all. Instead, the government’s repression was intensified. The fourth aspect was the plan for enhancement of piety. Thus, it wa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aggressively participate in ‘Gyojoshinwon movement’, so there was the need for binding together believers without giving up the movement halfway through. Like this, the complex factors, such as empowerment of its

organization, exclusion of Japan and the West, and enhancement of piety, made it possible for DONGHAK believers to hold a large-scale rally at Boeun and Geumgu.

The development of Boeun & Geumgu rallies continued for a month from March 10 until early April. DONGHAK believers mobilized devotees through two rounds of a circular report, resultantly gathering about 30 thousand people at Boeun Jangnae-ri in mid-March. The DONGHAK religious body intensified its organizational power by appointing Daejeopju (a responsible person for a large-scale organization of DONGHAK) through this rally. Hereupon, the Royal Court attempted to disperse the Boeun rally by appointing Uh Yun-jung as the royal secret inspector. However, the DONGHAK religious body denied the rally breakup until they received king Gojong's message. While staging such a rally at Boeun, DONGHAK believers gathered to hold a rally at Geumgu as well. The Geumgu rally was also conducted by Choi, Shi-hyung, and the Geumgu rally dispersion was followed by the Boeun rally dispersion. Viewed in this light, it might be safely said that both Boeun rally and Geumgu rally were led by the DONGHAK religious body.

The Boeun rally and Geumgu rally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aspect of its character and human organization. The exclusion of Japan and the West which was set forth to the fore at Boeun and Geumgu rallies was inherited as an ideal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uch an idea of exclusion of Japan and the West was plainly displayed in the Gobu uprising around the central organization 'Po' and the Baeksan rallies. In addition, even in human organization, the major figures, who participated in the Boeun/Geumgu rallies, also were

active as the leading influence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ularly, the leading figures of the Gobu uprising around the central organization 'Po' which made way for DONHAK peasant revolution, like Jeon, Bong-jun, Kim, Gae-nam, Sohn, Hwa-jung, and Sohn, Byung-hee, etc. were appointed as Daejeopju or participated in the Boeun rallies in the capacity of Jeopjang (head of the DONGHAK mission). In addition, they performed their assigned role until the last minute. From this point of view, it might be concluded that the Boeun/Geungu rallies were led by the DONGHAK religious group, and the rallies are judged to play a decisive role in leading up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Key words : Donghak(東學), Choi Jae-woo(崔濟愚), Choi Shi-hyung (崔時亨), Cheokwoeyangchang movement(斥倭洋唱義運動), Gyojoshinwon movement(教祖伸冤運動), Donghak peasant revolution(東學農民革命)